

미국 영주권이나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"공적 부조 수혜 자격"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 이에 해당하는 경우, 이민 당국은 해당 개인이 앞으로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될지를 살펴봅니다.

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심사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했으나 **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**다. 이민자 가족이 공적 부조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

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 부조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

- 공적 부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현재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이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- 주로 가족 구성원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만 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.
-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등 수많은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공적 부조 수혜 자격 심사가 면제됩니다.

일부 공공 복지는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

2

- 2025년 11월 19일부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공적 부조 수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,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공공 복지를 고려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
- 현재로서는 바이든 규칙이 여전히 유효하며 식량, 주택, 대부분의 의료 프로그램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.
- 현재 공공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, 지금 중단한다고 해서 공적 부조 수혜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,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.
-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향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

3

공적 부조는 단순히 복지 혜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

- 이민국 직원들은 단순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충분한 소득이나 자원을 보유한 다른 사람이 신청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. 과거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 있더라도 그러한 "재정 지원 진술서"와 기타 긍정적인 요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